

Artist's Statement

남종현

오래된 사물을 촬영하며, 그 안에 축적된 시간의 흐름과 내면의 깊이를 바라봅니다. 사물과 마주하는 순간, 단순히 형태를 인식하기보다 그 존재가 전하는 감각과 정서를 천천히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첫 만남에서 충분한 시간을 들여 사물을 바라보는 일은, 그 안에 담긴 다양한 이미지를 발견하기 위한 조용한 노력이며 하나의 다정한 구애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진 작업에서 저에게 중요한 요소는 여백과 라인입니다. 이 두 요소는 사물의 본질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 안에 잠재된 의미를 부드럽게 환기시켜 줍니다. 특히 한지에 프린팅하는 과정은 사물이 지닌 시간의 깊이와 물성을 온전히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가 됩니다. 한지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물질로서, 사물이 품고 있는 역사성과 시간의 흔적을 자연스럽게 드러내 줍니다.

작업을 통해 단순한 사물의 재현을 넘어, 그 안에 깃든 기억과 정서를 시각적으로 탐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물을 통해 시간을 기록하는 또 하나의 방식에 대해 조용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